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 기조연설

존경하는 존 나이스빗 교수와 폴 로머 교수,

기소르망 사장과 정운찬 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학계와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차세대 성장산업'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찾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존 나이스빗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따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발표하시는 많은 의견들이 대통령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나이스빗 교수께서는 한번도 대통령을 해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저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많은 말씀들과 나온 의견들은 아마 우리 정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마침 오늘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제안들이 풍성하게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한국 경제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전형적인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0여년만에 세계 13위의 GDP를 창출하는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섬유와 같은 제조업은 세계 5위권의 수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부하는 IT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의 양상 또한 자본이나 노동보다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혁신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후발국들은 또한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도 1995년에 달성한 1만 달러의 텃에서 8년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만 달러 달성 이후 5년에서 10년 안에 2만 달러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냐, 아니면 2만 달러 수준의 선진경제로 나아갈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은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 가 될 것입니다. '2만 달러 시대' 로의 도약은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과 변화가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

구해 온 방식과는 다르고 선진국이 수십년 전에 추진했던 2만 달러 전략과도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발전전략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후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지금부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은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기간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서 고도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경제는 연속적이며, 산업구조는 단기간에 모두가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이 지난 수십년간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도 일반 기계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산업 분야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 온 결과입니다. 주력기간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신기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아울러 찾아야 합니다. 신기술산업의 발전 없이는 당장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를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IT·BT·NT와 같은 신기술 분야는 소수의 앞선 나라가 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산업과 신산업,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서로 균형있게 선순환 구조로 발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기업인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될 차세대 성장동력은 과거와 같이 자본을 싸게 들여오고 임금을 싸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로지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 각 부문의 모든 시스템이 혁신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능률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도 변화해서 국가 혁신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창출은 결국 '혁신'을 선도해 나갈,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적자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공계 교육 시스템을 수요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산·학 협동 모델을 전국적으로 보급해서 대학 교육과 기업의 수요와의 괴리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고급 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생산·기능인력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인력지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국내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폴 로머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장은 기술혁신 노력과 혁신 의욕을 고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술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고, 또한 해외 우수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보고 찾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은 빈약하지만 우수한 인력이 많은 한국 경제의 활로입니다. 제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양적으로는 세계 8위 수준에 이르렀지만 기술개발의 생산성은 아직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는 연구소와 대학이 기업과 연계되어 '윈-윈'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을 산·학 협력과제 중심으로

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 즉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시장개혁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 인력과 기술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기술협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2만 달러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국정과제와 개혁과제들도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차세대의 성장동력 창출에 맞추어서 다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입니다. 기업이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관이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장만이 목표도 아닙니다. 성장도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존 나이스빗 교수가 언급한 대로 'high-tech, high-touch', 즉 '기술혁신과 인간성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번 회의가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국가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높은 식견을 가진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이 모이신 만큼 많은 제안과 조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의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혁신 주도형 정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